

2015년까지 '스마트 교실' 구축... 자기주도학습 이끈다



#1.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 전자칠판으로 수업에 침식한 학생들을 피악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보자'란 주제로 사회 시간 각자의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찾아본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며 모습을 따라해 보기도 한다. 발표에 나선 학생은 미리핑(자신의 회면을 전자칠판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띄우고 앞으로 나온다. 다른 학생의 질문을 녹음하면 즉시 메모로 바뀐다. 선생님의 설명은 애버노트로 기록해 친구들과 공유한다.

#2. 수학시간, 선생님이 전자칠판에 수업 할 교과서 페이지를 띄워 놓는다. 문제는 '입체 도형의 절단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절단면의 모습을 스마트폰처럼 터치해 확대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입체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주변 사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전자칠판에 쓴 문제 풀이 내용은 '스쿨박스'를 이용해 고스린 학생과 공유된다. 수업이 끝나도 '클래스팅(class tiling)'에서는 수업 시간 본 사진과 자료 밑으로 학생들의 활발한 댓글이 오고 간다.

교과부, 2조원 투입... 전국 학교에 전자칠판·교과서 도입

미래의 교실? 아니다. 이는 무안 청계중학교 등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미래형 교육, 스마트 교육과 이를 뒷받침 하는 스마트 교실이 오는 2015년까지 전국 학교에 구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2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자교과서, 전자칠판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스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모든 교과서 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마트 교육이란 기존의 제한된 인터넷 환경에서 컴퓨터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했던 '웹 기반 이러닝'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성이 보장된 'm-러닝'을 거쳐 시간, 장소, 환경 등

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말한다.

7대 과제, 28개 세부 과제로 나눠 추진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제도 정비 ▲스마트 교육 시범학교 구축 ▲자작물 공정이용 법적근거 확보 등이 실행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학생 협력 수업 모델과 교수 수업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태봉초·봉선중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 교수학습 모델 개발'과 '맞춤 스마트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선운초 등 3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비 총 1억여 원을 쏟아붓고 전자칠판, 무선인터넷 등 인

프라 구축에 1억6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도 지난해 무안 청계중, 목포 유달중 등 5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전자칠판, 무선인터넷, 단말기 등을 설치하며 스마트 교육 인프라 환경을 구축해 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14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학교당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업 모델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무안 청계중 이미자 교사는 "IT 기기에 친숙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다"며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찾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교사도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학생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난해 11월 무안 청계중에서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교육 연구 학교 수업 공개'장면. 교실 앞 전자칠판과 학생들의 책상 위에 교과서 대신 놓인 테블릿 PC 등을 통해 '스마트 교육'이 진행됐다. <무안청계중 제공>

전남문진원 3D콘텐츠 세계시장에

2개 과제 본격 제작... 해외시장 판로 개척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2013년 3D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중 2개 과제를 수주해 국제무대에 선보일 3D콘텐츠 제작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3D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은 방송사업자와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문진원은 동신대 신학학력단, 쇠쓰리디비전 등 제작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관과 외부방송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개 과제를 수주했다.

국비 지원액은 1차 파일럿 제작에 5000만원, 이후 십사를 통한 2차 본 제작에 3억9000만원 규모로 방송통신위 산하 한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지원받는다.

제작물인 3D 콘텐츠는 '한국의 민물고기-국립자연사의 사랑', '의스ტ립 스포츠-다이달로스의 날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인간과 자연의 교감, 극한의 스포츠 활동을 3D 입체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3월엔 서쪽 밤하늘을 보세요"

'판스타 혜성' 육안 관찰... 10일 2등급 밝기 예상



"우주로부터 찾아온 '밤하늘의 진객'(珍客), 혜성을 관측해보자!"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밝은 혜성이 3월 서쪽 밤하늘을 장식한다.

화제의 천체는 판스타(PanSTAR-RS) 혜성(C/2011 L4). 판스타 혜성은 오는 10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近日點)을 지나며 2등급의 밝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혜성과 태양간 거리는 0.3 AU(천문단위=태양~지구간 거리가 1AU)에 불과하다.

전남문진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선정돼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수주해 공예병인을 소재로 한 3D 다큐멘터리 '기듭나는 12공방의 숨결'을 제작한 바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일본 아마추어 천문가가 지난 2일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촬영한 판스타(Pan-STARRS) 혜성.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8일 태양에 접근하는 '아이손(ISON) 혜성'도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6년 하쿠타케 혜성과 1997년 혜성은 대형 혜성을 능가하는 대형 혜성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본에서는 10일부터 일몰 직후 서쪽 하늘에서 혜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관측 적기는 근일점을 지난 12~13일까지만 하늘이 여전히 밝은데다 고도마저 낮아 관측여건은 좋지 않다. 판스타 혜성은 지난 2011년 6월 하와이에서 자동탐색 시스템에 의해 발견했다. 발견 당시 밝기는 19.4 등급.

이 밖에도 오는 11월 2